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6월 12일(수)

윤석열 대통령,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의 경제협력 필요성 강조 -
- 공급망 구축, 인프라 개발, 제조업 발전 등 협력 분야 제시 -
- 양국 기업인 등 300여 명 참석, MOU 총 24건 체결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6/12, 수)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숨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되었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이 오랜 기간 쌓아 온 디지털 행정 역량을 카자흐스탄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로만 스클랴르 제1부총리, ▲카나트 샤를라파예프 산업건설부 장관, ▲무르트 누르틀레우 외무부 장관, ▲아이다르벡 사파로프 농업부 장관, ▲누를란 자쿠폠프 삼룩카즈나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포럼에서는 양국의 기업·기관 간 MOU, 합의문 등 총 24건이 체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